

스페이스X 상장 흥행 및 종전 기대, 3대지수 상승 지속



미국시황/ESG 김윤정 _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hyseong@ls-sec.co.kr

스페이스 X 상장 첫날 상승세, 옵션거래 및 지수편입도 임박

- 미 증시는 DOW +0.70%, S&P500 +0.50%, NASDAQ +0.31% 상승. 소재, 금융, 유틸리티 강세, 통신서비스, 헬스케어 약세
- 이란과 휴전 MOU 체결 기대감이 투자심리 전반 개선에 도움을 준 가운데, 스페이스 X 상장 첫날 +19.2% 상승하며 시총 6 위 기업 직행. 다만 장중 +30.8%까지 상승했다 되돌린 수치로 장중 변동성은 컸음
- 스페이스 X의 옵션거래 개시(6/16) 및 패시브 지수 편입도 연이어 예정. FTSE Russell 및 CRSP 상장 후 5 거래일, MSCI 상장 후 10 거래일, 나스닥 100 상장 후 15 거래일 편입 예정. 다만, S&P500 지수에는 조기편입 대상 미포함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5%, 글로벌 IB 시선은 엇갈림

- 빅테크 움직임은 비교적 제한된 반면 인텔(+6.5%), AMD(+4.7%), Arm(+11.3%) 등 상승 뚜렷
-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에이전틱 AI의 확산으로 서버 CPU 수요 급증을 기대, AMD와 인텔을 포함 반도체 핵심기업들의 목표주가를 상향.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병목현상 본격화로 HBM을 필두로 차세대 메모리칩 수요가 급증하며 시장이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고 평가
- 반면, 골드만삭스는 막대한 AI 자본지출 급증이 S&P500 ROE 압박할 가능성을 경고. 자산 증가 대비 매출 지연이 회전율과 마진 하락으로 이어지며 단기 수익성을 훼손할 위험 언급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속 이번주 FOMC에 귀추 주목

-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 48.9 전월·컨센 상회. 휘발유 가격 하락에 따라 저소득층 상승폭 컸고 계층 구분 무관 전 반적인 지표 개선세. 1년 기대인플레이션 4.6%로 전월비 -0.2%p이나 여전히 물가상승압력 경계. 5년 기대인플레이션 3.4%(-0.5%p)
- 미-이란 종전 합의 기대감에 국제유가 약세 불구, 국채금리 소폭 상승. 다음주 예정된 FOMC 앞둔 관망기조로 해석. 워시 싱임 의장의 점도표 제출여부 등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변화와 FOMC 성명상의 금리 방향성 관련 문구 변화에 주목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SPCX	스페이스X	+19.2%	나스닥 신규 상장 첫날 급등. IPO공모가 주당 \$135, 기업가치 약 \$1.8T로 책정되며 상장. 시초가는 \$150로 형성되었으며, 장중 최대 +30% 이상 상승하는 등 변동성. 증가 기준 공모가 및 시초가 상회 마감, 시가총액 약 \$2.1T로 시가총액 기준 6위 안착. 반면 로켓랩(-10.8%), 버진갤러티(-31.8%) 등 타 우주기업은 약세
NVDA	엔비디아	+0.2%	중국 고객사 대상 에이전틱 AI 전용 CPU '베라' 세일즈 피칭 개시 및 이르면 8월 출시 전망. 한 대형 중국 클라우드 기업은 각각 2개의 베라 CPU가 탑재된 서버 300대 이상을 발주할 계획. 해당 기업은 초기 테스트용으로 시스템을 우선 도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식 발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보도됨
AMD	AMD	+4.7%	Citi의 투자이견 '중립'→'매수', 목표주가 \$460→\$575 상향 조정에 주가 강세. 메타향 맞춤형 MI450 칩 공급 기반의 6GW AI 인프라 파트너십을 통해 GPU 부문의 독자적 가치가 전체 시가총액을 상회할 것이라는 SOTP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주요함. 향후 에이전틱 AI 수요 확대에 따른 서버 CPU TAM 성장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ARM	암홀딩스	+11.3%	BofA의 목표주가 \$245→\$335 상향 조정 소식에 주가 강세. BofA는 에이전틱 AI 등장이 CPU 시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인텔(+6.5%)과 AMD, 암홀딩스 기반 업체 모두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수요 촉진제라 생각한다 언급. 인텔의 투자이견은 '비중 축소'→'매수'로 두 단계 상향, 목표주가 \$96→\$135로 상향 조정
UAL	유나이티드항공	+2.6%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여행·항공·크루즈 업종 상승. 델타항공(+1.5%), 카니발(+3.8%), 로열캐리비안크루즈(+2.2%) 등